

Novartis, 한국에 1억달러 투자

보건복지부와 R&D투자 MOU 논의 ... 임상시험 확대에 연구자 연수도

스위스 제약기업 Novartis가 국내에 1억달러 상당의 R&D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5월1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한국Novartis는 1억달러의 국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MOU 체결을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MOU 체결을 앞두고 문안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르면 6월에 양측이 합의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MOU가 체결되면 한국Novartis는 앞으로 5년 동안 R&D 분야에 1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국내 임상시험 물량 및 규모를 늘리고 국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이나 연구자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MOU에 포함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Novartis 벤처펀드가 이미 국내 바이오벤처 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투자 MOU 체결되면 벤처투자 규모가 늘어나게 된다” 설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5/15>